

PC, 극동아시아 시장을 잡아라!

2003년 성장률 4-6% 예상 ... Bayer Polymers는 중국투자 확대

아시아의 SARS(Serious Acute Respiratory Syndrome) 여파와 미국 GDP 성장률 둔화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원료 코스트 상승으로 PC(Polycarbonate) 시장이 2003년 1/4분기 들어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PC 생산기업들은 계속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컴퓨터, 전자제품 및 기타 소비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Dow Chemical은 2002년 4/4분기 불황 이후 2003년 1/4분기 수요가 안정되기 시작해 2/4분기 이후에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PC 시장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은 감소했지만 태평양 지역의 SARS 확산으로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SARS 여파로 태평양 지역의 PC 수요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SARS가 물러가면 곧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유럽시장은 환율변화가 수입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환태평양 연안지역에서는 강세가 예상되는데, 4-6%의 시장성장률이 예상되며 플랜트 가동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Bayer Polymers도 2003년 1-5월 PC 판매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신기술 개발과 응용범위 확대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3년 세계 수요량은 190만톤을 초과 달성했고 2003년 극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높은 신장을 보여 8-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E Plastics은 여러 신제품을 개발해 성장가능성을 확인했지만 2003년 PC 판매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C 산업은 응용제품 개발이 관건이며 현재 그레이드나 Alloy 등의 신기술이 요구되는 독창적이고 맞춤형의 다양한 응용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중국은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고 일본은 이미 세계적인 자동차 및 전자제품 생산국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ARS 여파에도 불구하고 PC 시장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4분기에는 원료와 에너지 코스트가 상승함에 따라 PC 생산기업들이 판매가격을 높여왔다. 마진을 남기기 위해 가격인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Dow는 2003년 2월 계약가격을 kg당 0.3(0.28)유로로 발표했다.

미국-이라크 전쟁과 SARS 때문에 탄화수소(Hydrocarbon)와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해 관련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2003년 1/4분기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원유가격 상승으로 모든 산업부문에서 원료 코스트가 동반 상승했다.

Bayer Polymers도 코스트가 상승하자 2003년 2월과 4월 Makrolon PC/Polyethylene Terephthalate 및 Apec High-Heat PC 계약가격을 상향조정했다.

Bayer Polymers는 미국과 유럽, 중국, 극동아시아 지역에 5개의 PC 플랜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2004년까지 독일 Uerdingen 플랜트 생산능력을 30만톤으로 증설하고 2005년까지 중국 Shanghai의 Caojing Chemical Park에 2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Bayer Polymers는 세계 4개 지역에서 PC 74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시장 성장률이 높은 지역, 특히 중국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3/12/09>